

“공급망 수혜 신흥국 조망… 차별화 ETF 상품 선보일 것”

한투운용 ‘인도&VIM 세미나’

‘넥스트 차이나’ 대안국가 주목
베트남 등 신규 펀드 출시 계획
“맞춤형 전략으로 경쟁력 제고”

“당사는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망한 투자수단을 찾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이 20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도&VIM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수혜 가능성이 높은 신흥국 시장을 조망하고, 맞춤 투자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한투운용은 이날 세미나에서 ‘넥스트 차이나’의 후보로 인도,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을 주목했다. 근거로는 높은 생산 가능 인구 비중, 저렴한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장이 20일 오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인도&VIM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인건비 및 높은 생산성 등을 들었다. 이상원 한투운용 상품전략본부장(상무)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이후 시작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 베트남,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 대안 국가가 주목받게 됐다”며 “중국향 외국 인직접투자(FDI) 규모는 지난해 급감했지만, 동일 기간 4개국 FDI 규모는 중국의 약 71%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

으로, 이미 시작된 대안국가로의 FDI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트남은 풍부하고 저렴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멕시코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히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자원부국에서 전기가 허브로 변화 중에 있다는 부연이다. 특히 인도는 제2의 중국으로 부상하

며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김민수 CMK투자자문 대표는 “모디 총리의 ‘포괄적금융지원계획’ 시행 이후 디지털 사회로 전환이 이뤄지며 글로벌 기업과 기관 투자자가 인도를 주목하고 있다”며 “인건비 경쟁력과 정부 지원 아래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인프라, 내구재 및 임의소비재 등 제조업 분야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은 신흥국 인도 증시에 투자하는 관련 ETF 상품을 선두로 출시해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각사별로 다른 운용 방식에 따라 수익률, 과세 체계 등이 차이 나게 된다. 이에 따라 한투운용도 신흥국 투자전략을 공개했다.

현재 한투운용은 인도 대표그룹주에 투자하는 ▲한국투자인도5대대표그룹펀드 ▲ACE 베트남VN30(합성) ETF ▲한국투자베트남그로스펀드 등 베트남 펀드, 멕시코와 인도네시아에 각각 투자하는 ▲ACE 멕시코MSCI(합성) ETF ▲ACE 인도네시아MSCI(합성) ETF를 보유하고 있다.

오혜윤 한국투자신탁운용 해외투자 운용부장은 “인도 시장은 대표그룹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진행하는 ‘승자독식’ 구조”라며 “당사의 다양한 상품 중 특히 한국투자인도5대대표그룹펀드는 인도를 대표하는 5대그룹에 집중투자한다는 점에서 타사와 차별화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대상은 자동차와 철강으로 유명한타타그룹, 정유화학기업인 릴라이언스그룹, 인도 대표 IT 서비스기업 인포시스, 금융그룹 HDFC, 소비재기업 바자즈 등이다.

이외에도 한투운용은 베트남·인도·멕시코 등 신흥국 3개국에 분산투자하는 새로운 펀드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오 부장은 “한 국가에 투자하는 것보다 3개국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더 높은 절대 수익률과 더 낮은 변동성을 나타냈다”며 “각 국가별 스타일과 사이즈별로 가장 우수한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를 담은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인벤티지랩, 주가 급등… 기술수출 기대감 주효

장기지속형 주사제 사업화 공유
장중 1만4000원대까지 치솟아

인벤티지랩이 비만치료제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기술수출 기대감으로 급등했다. 20일 코스닥 시장에서 인벤티지랩은 전일보다 13.20% 오른 1만40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글로벌 빅파마를 비롯한 국내 주요 제약사들과 기술수출 계약 체결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기대감이 모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벤티지랩은 최근 주주들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사업화에 대한 내용을 공유했다.

사업화 논의가 가장 빠른 파이프라인

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비만·당뇨 치료제다. 인벤티지랩은 현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동일한 성분의 비만치료제 ‘TVL3021’을 1개월 지속형 주사제로 개발하고 있다. 비임상에서 1개월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치료 효과를 확인했으며 특히 기존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갖는 문제점인 ‘과다 방출’ 없이 안정적인 약물 방출을 보여 주목을 받았다.

인벤티지랩 관계자는 “현재 비만·당뇨 치료제의 경우 국내 탐티어 제약사와의 라이선싱 계약을 진행중”이라며 “성공적으로 실사를 완료하고 구속력 있는 텀시(Binding Term-sheet)에 합의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계약 체결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했다.

글로벌 사업화 역시 가시화 된다. 회사측은 글로벌 동물제약사와는 장기지속형 주사제 생산 플랫폼 이전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회사측 관계자는 “유럽 내 EU-GMP에 생산 플랫폼 기술을 이전하는 프로젝트로, 당사의 양산 장비 및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의 실사를 마친 상황”이라며 “전립선암·성조숙증 치료 장기지속형 주사제들은 실사 중에 있으며, 자가면역질환 신약(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은 글로벌 바이오테크와 구체적인 라이선싱 계약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제약사라도 글로벌 사업화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한국투자증권 ELS·ELB 22종 출시

한국투자증권은 주가연계증권(ELS)과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22종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TRUE ELS 16641회’는 네이버(N AVER)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상승부스터형 상품이다. 만기는 1년이며, 상환여부는 4개월 차에 1회 판단해 기초자산이 기준가격의 90% 이상이면 5.3%의 수익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

테슬라(Tesla)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TRUE ELB 1940회’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승낙아웃(Knock-out)형 상품이다. 만기는 1년이며,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격의 100% 초과 147% 이하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최대 47%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그외 상품 19종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안상미 기자 smahn1@

신한투자증권 “‘신한브리즈’ 만나보세요”

증권사 최초 향기마케팅 실시

신한투자증권은 증권사 최초로 신한투자증권 시그니처 향인 ‘신한브리즈(사진)’를 통해 향기마케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신한브리즈’는 프리미엄 프래그런스 브랜드인 테일러렌츠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신한투자증권만의 시그니처 향이다. 은은한 나무 향과 풀꽃향을 담아 기분 좋게 불어오는 산들바람처럼 언제나 신한투자증권 고객 곁에 머물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8월부터 지점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하고, 직원들에게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지점에 ‘신한브리즈’ 디퓨저와 룸스프레이를 배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11월부터 고객용 신한브리즈 멀티퍼퓸을 출시해 지점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고객용으로 제작된 신한브리즈 멀티퍼퓸은 옷, 차량용 시트, 공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탈취제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비건 레시피로 제작됐다.

김수영 신한투자증권 브랜드홍보본부장은 “후각은 인간의 오감 중 기억과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감각 기관”이라며 “신한브리즈 향기를 통해 고객들 마음에 신한투자증권 브랜드를 오래 남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20일 서울사옥에서 제2회 KRX 주식 투자 알고리즘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경진대회는 금융 관련 아이디어를 공모했던 작년과 달리 주식 투자 ‘알고리즘’ 대회로 개최됐으며, 시상 규모도 2배로 확대돼 참여도가 높았다. 최우수상에는 머신러닝 시계열 예측 알고리즘인 ‘SCINet’을 활용해 주가상승 종목을 예측한 팀 ‘Error’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매수·도 조건을 활용한 알고리즘을 개발한 팀 ‘데이con’과 지수를 활용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개발한 팀 ‘연봉올려주세요’가 각각 수상했다. /한국거래소

거래소, 온라인 ‘회계지원 플랫폼’ 오픈

검색엔진 탑재… 모바일 버전 제공

한국거래소는 중소기업의 회계업무 지원을 위한 온라인 ‘회계지원 플랫폼’을 20일 정식 오픈했다.

회계지원 플랫폼은 다양한 회계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회계 담당자들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회계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회계유관기관의 각종 회계정보를 취합해 보기 쉽게 분류·계재했고, 검색엔진을 탑재해 사용자 검색이 용이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모바일 버전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폰으로도 관련 자료 등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플랫폼은 유관기관 보도자료, 기준서 및 질의회신, 회계감사 관련 자료, 교육자료, 온라인 상담·신청 등으로 구성됐다. 사용자가 최신 동향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회계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합해 제공한다.

기준서 및 질의회신의 경우, 회계기준서(K-IFRS, K-GAAP), 내부회계관리

제도 규정, 감사기준서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회계기준서 해석·적용 관련 금감원 및 기준원의 질의회신 자료 2025개는 별도 수록돼 있다. 더불어 정책자료(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 및 외부감사인과 계약체결 시 필요 자료(표준감사시간, 상장법인 감사보수 현황 등)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무회계실무, 내부회계관리제도, XBRL 등 특히 중소기업 회계담당자에게 필요한 온라인 교육자료도 제공한다. 상담 및 신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서는 감사대응, 회계처리, 내부회계 등과 관련해 기업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신청 창구를 마련했다.

거래소는 “외감규정 개정에 맞춰 자율분쟁조정 신청 접수, 공정가치 평가 지원 등 기능을 지속 추가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들의 회계정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이 증대되고, 회계지원센터와 상호 의사소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